

News

기관 청약에 2585兆 몰렸다... 카뱅, 시작부터 대박

조선일보

카카오뱅크 SKIET의 청약 기록 깨며 공모가 3만9000원으로 확정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26~27일 진행. 공모가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내면 청약이 가능

KB·하나금융,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 기록...중간배당도 발표

이코노미스트

KB금융 상반기에만 2조원대 당기순이익 기록. 하나금융도 역대 최대 순이익 성과

업계 관심 받은 중간배당도 일제히 발표(KB금융 주당 750원, 하나금융지주 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 결정)

지방은행, 자금 조달 안전성 '역대 최약'

데일리안

지방은행 평균 NSFR(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눠 계산) 106.5% '사상 최저'

코로나19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돈줄을 찾기가 어려워진 탓

코로나 연체자 신용회복 검토...모럴해저드는 부담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착수

연체기록 등재 유예하거나 기간 조정하는 방안 유력. 성실상환자 옥석가리기 실패시 모럴해저드 우려

전화로 모바일 화면 보며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서울경제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청약절차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게 가능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

대법 "보험계약 무효때 반환청구권, 5년 지나면 소멸"

파이낸셜뉴스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험 역시 상사계약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NH투자증권, 2분기 순이익 2704억 '사상 최대'

뉴시스

NH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이 매출 2조899억원, 영업이익 3929억원으로 집계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탓에 카카오페이증권 신사업 영향 불가피

조선비즈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연기되면서 차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신사업에도 빨간불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연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페이 상장으로 인한 자금 수혈이 늦어질 수 있는 탓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